

정부혁신 보다 나은 해양수산부  해양수산부		보 도 자 료 2020. 4. 28.(화) 총 6매(본문 3, 붙임 3)		힘내라 대구정북 힘내라 대한민국
		배포 일시		
담당 부서	해양개발과	담 당 자	• 과장 유은원, 팀장 신선호, 사무관 이경환, 주무관 김민지 • ☎ (044) 200-5240, 6181, 6182, 6184	
	원양산업과	담 당 자	• 과장 양영진, 주무관 서범석 • ☎ (044)200-5360, 5362	
	극지연구소	담 당 자	• 기획부장 진동민, 홍보실장 이지영, 행정원 강민구 • ☎ (032) 770-8600, 8630, 8631	
보 도 일 시		2020년 4월 29일(수) 조간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통신·방송·인터넷은 4. 28.(화) 11:00 이후 보도 가능		

극지의 팔방미인 ‘아라온호’ 코로나19로 고립된 원양어선원을 태우고 광양항 입항 - 182일간의 남극 연구활동을 마치고 귀환 -

해양수산부(장관 문성혁)와 극지연구소(소장 윤호일)는 국내 유일의 쇄빙연구선인 아라온호가 182일간의 남극 연구활동을 마치고 오는 29일 광양항으로 돌아올 예정이라고 밝혔다.

작년 10월말 인천을 출발한 아라온호는 남극 중앙해령과 아문젠해, 로스해 등 지구 한 바퀴 반에 해당하는 총 57,000km의 바다를 누볐다.

이번 항해에서 아라온호는 남극해 연구, 장보고 과학기지 보급 등 계획된 임무뿐만 아니라, 조난어선 구조와 고립된 원양어선원의 입국 지원 등 사전에 계획되지 않은 비상임무 수행 등 24시간이 모자랄 정도로 빡빡한 일정을 소화하였다.

남극에서 아라온호는 가장 빠르게 녹고 있는 서남극 스웨이트 빙하에 접근하여 관측망을 설치하고, 과거 빙하의 움직임 복원과 빙봉*의 소멸 연구를 위한 퇴적물과 바닷물을 채집하였다.

* 빙봉 : 남극 대륙 위 빙하와 이어진 채 바다에 떠있는 수백 미터 두께의 얼음덩어리로 빙하가 바다로 빠지는 것을 막는 역할을 함

또한, 앞선 탐사에서 새로운 맨틀을 발견하여 30년간 통용되던 기존 학설을 뒤집는 성과를 거뒀던 질란디아-남극 맨틀의 경계 확인을 위한 해저 시료를 채취하고, 로스해 해양보호구역의 크릴 분포와 이를 먹이로 하는 아델리펭귄에 대한 연구도 진행하였다.

특히, 이번 항해는 전 세계적인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으로 일부 연구자의 경우 감염 예방을 위해 교대 없이 최장 123일을 아라온호에서 연구를 수행했으며, 승선원과 기지 대원 간 접촉 없이 장보고 과학기지 보급을 진행하느라 당초 계획보다 일정이 지연되는 등 여러 어려움을 극복한 항해였다.

이러한 상황에서도 아라온호는 지난 1월에는 조타기 고장으로 유빙에 갇혀있던 우리 원양어선 707호진호를 구조하였고, 남극 연구 항해를 마치고 귀항 중에는 선박 침몰로 파푸아뉴기니(이하 'PNG')에 고립되어 있던 원양어선원 25명의 귀국을 지원하였다.

특히, PNG에 있던 선원들은 지난 3월 21일 선박 침몰 사고 이후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PNG의 공항·항만폐쇄, 국경봉쇄 등으로 귀국이 언제 이루어질지 전혀 예상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

이에 해양수산부는 침몰사고 어선원의 정신적·육체적 안정을 위해 이들을 긴급 귀국시키는 것이 급선무라고 판단, 외교부와의 협조를 통해 PNG 정부와 긴급 협의하였으며, 국내로 귀항중인 아라온호가 이들을 승선시켜 함께 귀국길에 오르도록 하였다.

극지 연구, 과학기지 보급 등 본연의 역할 외에도 어려움에 처한 선박 및 선원 구조에도 혼신의 힘을 다해온 아라온호의 전 승선원을 격려하기 위해 문성혁 해양수산부장관은 26일(월) 15시 50분에 아라온호 김광현 선장과 유선 통화하였다.

이 통화에서 문 장관은 “어려운 상황에서도 해외에서 고립된 원양 어선원의 귀국을 지원하는 아라온호는 코로나19로 위축된 국민들에게

희망을 주는 사례이다.”라며 “마지막까지 방역과 안전조치에 최선을 다해 승선자 모두 건강하게 돌아오길 바란다.”라고 당부하였다.

광양항에 입항한 아라온호는 연중 연구활동 계획 차질이 생기지 않도록 선박수리와 운항점검 등을 서둘러 마치고 오는 7월 북극 항해를 위해 다시 출항할 계획이다.

해양수산부 오운열 해양정책실장은 “이번 남극항해에서 아라온호는 건조 후 최장 기간인 60일을 무보급으로 항해하며 코로나19라는 악조건 속에서도 본연의 임무인 기지보급과 연구활동 외에 우리 어선 구조와 원양 어선원의 귀국 지원 등 역할까지 훌륭하게 완수하였다”라며, “아라온호 1척으로 남·북극 연구활동, 기지 보급, 긴급 구조까지 감당하기에는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안전하고 우수한 성능을 가진 제2쇄빙연구선 추가 건조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 ※ 아라온호를 통해 귀국하는 원양어선원(한국인 11, 인도네시아인 6, 베트남인 6, 필리핀인 2)은 방역지침에 따라 2주간 의무적으로 자가격리될 예정임
- 자택 내 격리가 여의치 않은 선원(내국인 4명, 외국인 14명)의 경우 부산역 인근 임시격리시설인 라마다앙코르호텔에서 자가격리에 들어갈 예정
 - 나머지 내국인 7명은 자택에서 자가격리 예정

□ 아라온호 개요

- (준공) 2009. 11. 2
- (주요재원) 7,507톤, 111m × 19m × 9.9m (길이×폭×깊이)
 - * 360도 회전이 가능한 전기추진 방식(Azimuth)
 - * 경제 항해 속력 : 12노트(최대 16노트), 17,000마일(60일 무보급 항해)
 - * 총 85명(승무원 25명 + 연구원 60명)
- (쇄빙성능) 1미터 두께의 다년빙을 3노트로 연속쇄빙

□ 연간 기본운항계획



* 세부 일정은 매년 연구수행 일정 및 기지 보급 일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주요 임무

- 북극해 (척치해, 배링해, 보퍼트해 등) 결빙해역 연구
- 남극해 (로스해, 아문젠해, 중앙해령, 웨델해 등) 결빙해역 연구
- 남극 2개 기지 (장보고과학기지, 세종과학기지) 보급 지원



< 아라온호 >



<결빙해역 항해>



<기지보급>



<연구시료채취>

□ 주요 연구활동



스웨이트 빙하 탐사를 위한 얼음투과 레이더



남극 중앙해령 탐사



남극로스해 해양보호구역 해양생물 시료 채취

□ 탐사지역





극치연구소